

건축문화 **사람**

Vol.059 10. OCTOBER 2014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람** 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람' 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광주 · 전남 · 전북 건축사회

News 2014. 10

059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528.0026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建築士 변화의 시작을 알리며...”

2014. 10. 23 (목) ~ 24 (금)

본대회 : 2014. 10. 24 (금) 경상북도 구미코(구미)

인터뷰_사람&issue

전북/건축사사무소 예감 강미현 건축사



Gyeongsangbuk-Do
 주최: 대한민국건축사협회(KIRA) 주관: 대한민국건축사협회 경상북도건축사회
 후원: 국토교통부, 경북도청, 경북건축사협회, 구미시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10.23 Thu ~ 24 Fri 본대회 10.24
 장소: 구미코(구미) 대관: 전국 18개 시도건축사회 회원 10,000여명

특별기고

‘건축의 날’ 에 바라본 광주의 비전_ 안용훈

여수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설계용역

시론 02

건축사의 경고와 기대_ 강현구

설계경기 03

여수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설계공모 _ 당선작 :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이순미 건축사

기획 04-05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경상북도 구미에서 “建築士 변화된 시작을 알리며...” 개최

학술 06

조경과 인접 분야의 협업과 상생 제2부 _ 안상욱

사람 & issue 07

“우리의 건축은 ‘사람’ 을 향합니다.” _ 강미현

특별기고 08

‘건축의 날’ 에 바라본 광주의 비전 _ 안용훈

NEWS 09~11

제15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개최 / 건축사 회원 동정



당선작 :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이순미 건축사

학술 – “조경과 인접 분야의 협업과 상생” 제2부



파주 윤정 해솔마을 6단지 중앙광장 전경

건축사의 경고와 기대



강 현 구 건축사
조형 건축사사무소(주)
dooo21c@hanmail.net

예를 들어, 주어진 직책과 지위를 남용하고 악용하여 군림하려는 자,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는 자, 공중의 이익보다는 사리사욕에 사로잡힌 자,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척하는 자, 배려와 이해보다는 독선과 아집을 선호하는 자, 자신의 영역과 권한을 초월하여 모든 분야를 간섭하려는 자, 경험과 현실성을 부정하며 이상과 이론에만 젖어 있는 자,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에만 집착하는 자, 피해의식과 소외감에 젖어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은 자, 판단력도 소신도 없는 우유부단한 자, 능력과 본분을 망각하고 감투에 눈이 먼 자, 빈 수레가 들뜬 날까봐 안절부절 하는 자, 상대방을 무시하고 괘시함으로써 자신의 명예와 입신을 쫓는 자, 정정당당보다는 권모술수에 능한 자, 모처럼 주어진 갑의 권한을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자... 바로 그러한 자들이 득세할 경우에 본말이 전도되는 사태가 초래되는 것이다.

본말전도(本末顛倒)! 직설적으로는 뿌리와 잎사귀가 뒤바뀐 것처럼 일의 순서가 잘못된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그 의미를 좀 더 살리면, 일의 경중이 뒤바뀐 상태가 된다. 즉, 일의 근본이 되는 취지와 목적은 잊어버리고, 중요하지도 않은 사소한 부분에만 사로잡혀 있을 때 흔히 쓰는 말이다. 따라서 본말이 전도되면 수많은 폐해와 부작용이 속출하는 것은 당연하다. 심하게는 당초의 취지와 목적이 왜곡되거나 상실되기도 한다. 뿌리와 잎사귀가 뒤바뀐 상황에서는 그 나무가 온전할 리 없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본말이 전도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격분하기도 하고 억울한 피해를 입기도 한다. 그리고 그 일은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거나 돌연변이처럼 변질되기도 한다. 이처럼 많은 문제가 유발되는데 불구하고 도대체 누가 본말의 전도를 유도하거나 획책한다는 말인가? 대체로 제사보다 젓밥에 더 관심이 많거나, 혹은 오직 자신의 영달만을 생각하는 자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득세를 할 경우에 본말이 전도되는 사태가 초래되는 것이다.

경험에 의하면 건축과 관련된 각종 심의제도 또한 그러한 사례 중 하나다. 그렇다고 심의제도의 필요성이나 모든 관계자들의 역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의미는 결단코 아니다. 흔히 그러하듯이 몇몇 소수의 인사들이 구성원 모두를 옥보이고, 조직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며, 제도를 왜곡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행정기관이나 관계기관 및 지도층 인사들의 무관심과 방관이 더해져 그들의 횡포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요자 혹은 사용자의 의견조차 무시하는 월권적 권위주의, 건축전문가의 철학과 의도마저 짓밟아버리는 초월적 우월주의, 건축사의 노력과 손실 따위는 감안하지도 않고 오히려 겁박하는 일방적 갑을논리, 막연한 논리와 추상적인 요구로 권리는 누리고 책임은 회피하는 치사한 적당주의, 항변의 기회는 박탈하고 옥상옥으로 부담만 가중시키는 절차상의 문제 등까지 겹쳐져 심의제도는 규제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물론, 모든 지역 혹은 모든 분야의 심의가 다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건축과 관련된 광주광역시 심의제도의 경우는 그러하다고 본다. 더군다나 문화의 도시, 예향의 도시, 인권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서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특히, 건축주인 시민들이 그 모든 폐해의 실질적인 피해자라는 점은 간과할 수도 없고 결코 간과해서도 아니 된다. 이에 국가에서 인정받은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감히 경고하는 바이다.

공간구조와 건축물은 그 도시의 이미지와 품격을 좌우한다. 그러한 건축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한 광주광역시는 2008년 1월 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공포한 바 있다.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과 동시에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6개 분야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토록 정하고 있다. '공공적 가치와 목적의 구현', '역사·문화·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의 고려', '예술성·창의성·절제미의 추구', '쾌적성·안정성·기능성의 확보', '지속가능성 및 자연환경과의 조화', '배리어프리 또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추구' 등이다. 즉,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수준향상을 통해 '문화의 도시', '예향의 도시' 광주로써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품격 높은 문화적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다. 이 얼마나 광주다운 일인가?

그러나 본말전도의 사례로 꼽을 정도로 운영과 관리에는 문제가 있다. 당초의 목적과 취지가 왜곡되거나 퇴색되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건축사들 사이에서는 불평과 불만을 넘어 성토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을 정도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물론, 건축사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축사들이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운영 및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무엇보다도 심의위원들의 자질에 대한 논란은 불식되어야 한다. 적어도 심의위원은 학식으로도든 경험으로도든 전문성만큼은 심의대상자를 압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 축구팀의 감독이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작전을 지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이치다. 또한, 심의위원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소임에 대한 진정성과 윤리성, 의사소통이 가능한 표현력과 설득력, 발언에 대한 책임감과 객관성,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인격과 포용력 등을 고루 갖추어 사회적으로도 존경받을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 따라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위원 사전검증시스템도 갖춰져야 한다.

그 밖에도 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개선사항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심의제도가 일종의 규제인식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수요자 혹은 사용자의 의견 반영, 전문가의 철학과 의도 존중, 이해와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조정과 자문 등을 위한 대안이 검토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심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그 결과를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공개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공개토론 등을 통해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시스템도 정비되어야 한다.

사필귀정(事必歸正)! 올바르게 못한 것이 일시적으로 기승을 부리지만, 결국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뜻이다. 심의제도 또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문화예술의 도시를 지향한다면 끝내 올바른 제도로 돌아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믿음이 현실화되리라 기대한다. 특히, 시민시장의 시대가 열렸기에 기대하는 바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크다. ☐

2014 Architect's Dream Solution

정보카드, 건축설계 환경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합니다.

정보카드를 통해 설계업무 과정에서 경험했던 비효율적인 작업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창조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미래의 설계업무 환경을 미리 경험해 보세요.

미래의 설계환경에 건축사님을 초대합니다.

10월	11월	12월
진주 10/14 (화)	부산 11/4 (화)	춘천 12/2 (화)
구미 10/16 (목)	대전 11/6 (목)	서울(강남) 12/4 (목)
서울(강북) 10/21 (화)	울산 11/11 (화)	순천 12/9 (화)
수원 10/22 (수)	청주 11/13 (목)	아산 12/11 (목)
일산 10/28 (화)	광주 11/18 (화)	인천 12/16 (화)
	전주 11/20 (목)	제주 12/18 (목)
	김해 11/25 (화)	
	대구 11/27 (목)	

행사 참가 신청

www.midasArchi.com/seminar

행사 관련 문의

광주·전남 서영창 010. 8896. 1248 / syc0517@midasit.com
전북 조슬아미 010. 6691. 9282 / csam0602@midasit.com

1990년도에 건축된 장애인복지관이 건물노화 및 지반 침하로 기울어져 이용자에 대한 안전 문제가 시급한 실정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건물로 새롭게 건립하여 지역장애인중심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水)치료 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함.

- 심사위원 -

충남대학교 건축학과 김영석 교수,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이상학 교수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진 정 교수,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유기표 교수
 여수지역건축사회 장춘기 건축사, (주)한국구조안전연구원 조철희 기술사
 여수시장애인연합회 김중호 회장, 여수재가장애인총연합회 고영수 회장

여수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설계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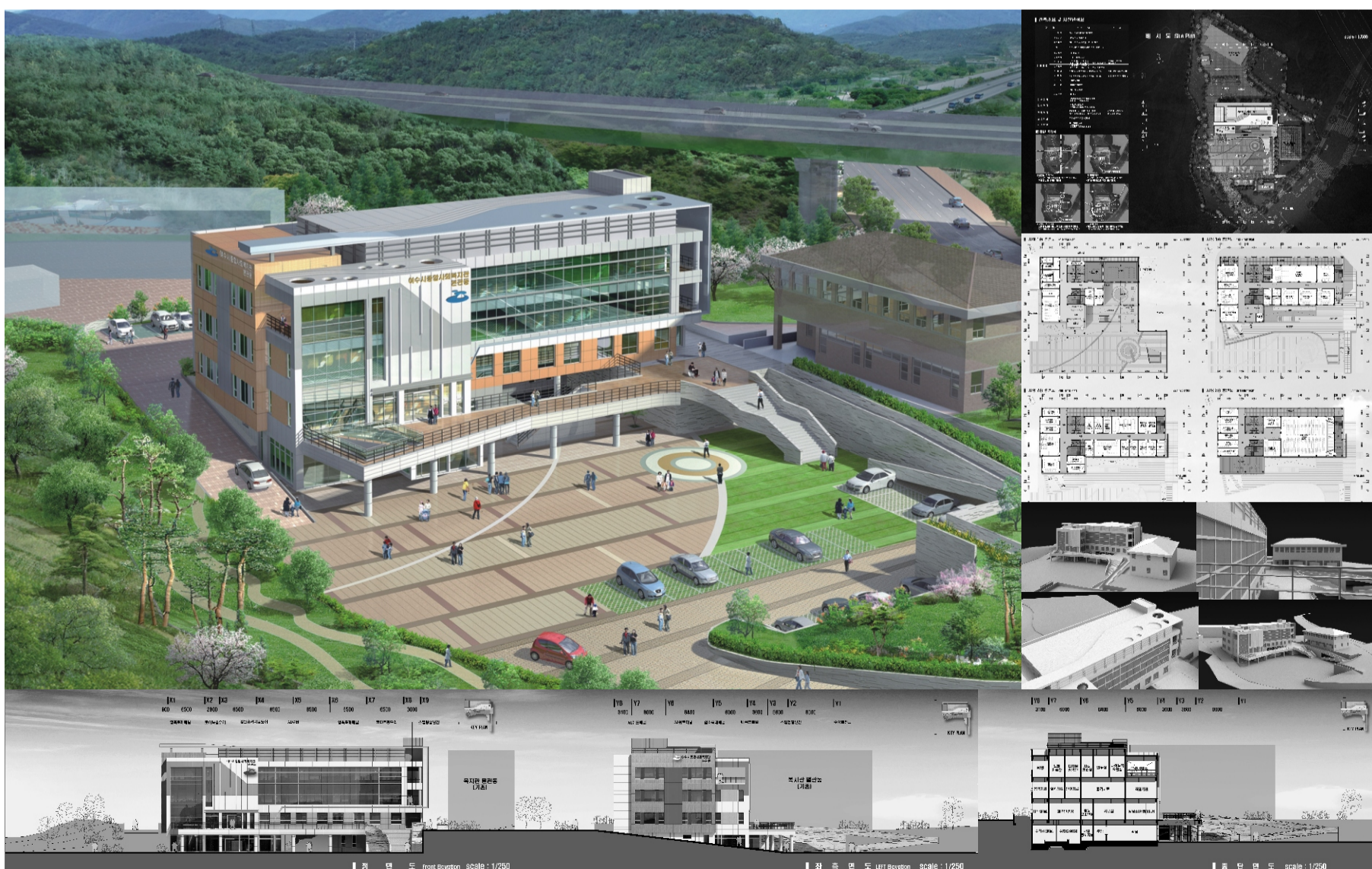
당 선 작 :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우 수 작 : (주)우도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순미 건축사
 안성섭 건축사

당 선 작 이 순 미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우 수 작 안 성 섭 건축사 (주)우도 종합건축사사무소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경상북도 구미에서 “建築士 변화된 시작을 알리며...” 개최

- 오는 10월 23일과 24일 경상북도 구미시 일원에서 경북건축사회(회장 임송용) 주관으로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열려
- 본대회 10월 24일 구미코에서 진행, 각종 기념행사와 더불어 실무교육, 건축물 투어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되어



Gyeongsangbuk-Do

주최: 대한건축사협회(KIRA) 주관: 대한건축사협회 경상북도건축사회
후원: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구미시

2014 KIRA National Convention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10.23 Thu ~ 24 Fri 본대회 10.24
장소: 구미코(구미) 대상: 전국 16개 시·도건축사회 회원 10,000여명



- ① 지난 2012년 10월 광주광역시에서 '건축사 삶을 짓다'라는 주제로 성공적으로 개최된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 ② 2012년 대회 사진-대한민국건축사대회가 대한건축사협회장 강성익 회장(전)으로부터 경상북도 건축사회 전상훈 회장(전)에게 전달되었다.

대한민국 1만여 건축인들의 축제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가 오는 10월 23일과 24일 양일간 경상북도 구미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12년 10월 광주광역시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에 이어 2년 만에 개최되는 대회로 대한민국 모든 건축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올해 대회는 “建築士 변화된 시작을 알리며...”란 주제로 개최되어 향후 건축사들의 미래를 향한 변화의 밑바탕을 보여주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 기획지면을 통해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진행될지 사전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여 대한민국 모든 건축인들이 함께하는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행사개요

- 대회명칭 :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 영문명칭 : KIRA National Convention 2014
- 일 시 : 2014. 10. 23(목) ~ 24(금)
- 본 대 회 : 2014. 10. 24(금)
- 장 소 : 경상북도 구미시 일원 (본대회:구미코)
- 프로그램 : 본 대회(실무교육, 기념식), 오만찬, 부대행사, 투어 등
- 참가인원 : 전국 16개 시도 건축사 회원 10,000여명
- 주 제 : 2014 建築士 변화된 시작을 알리며...
- 주 최 : 대한건축사협회(KIRA)
- 주 관 : 대한건축사협회 경상북도건축사회
- 후 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구미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대회 상징물



엠블럼

대한민국건축사대회

대한건축사협회 KIRA를 모티브로 사람과 도시, 사람과 자연, 사람과 문화, 사람과 사람을 소통시키는 “ROAD-길”과 “건축물”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세계 속의 한국건축을 만들어 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전문가 단체가 대한건축사협회(KIRA)임을 나타냄.

주제



2014 建築士

변화된 시작을 알리며...

설계만 잘하면 되는 시대는 끝나고 멀티융합형 건축사가 되어야 한다. 건축사의 모체인 대한건축사협회가 전국건축사들의 변화의 선두에 서야한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도시인 구미에서 최초로 개최함은 대한건축사협회가 그들만의 협회가 아닌 진정한 전국 1만여명의 협회로 거듭 나는 변화의 시작을 느끼고 싶다는 건축사의 염원을 담음.

대회장 초대의 인사말



김영수 대회장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대한건축사협회장

2014년도 대한민국건축사대회가 신라 천년문화, 신비의 가야문화, 그리고 민족문화 근원으로 선비정신의 유교문화가 살아 숨 쉬는 경상북도의 구미에서 열려 회원분들과 함께 합니다.

한 사람이 가는 열 걸음보다 열사람의 한걸음이 더 크고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어려운 시기 비전을 향해 함께 일하는 협력의 모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건축미래를 만들기 위한 변화의 시작, 바로 건축사의 하나된 힘으로부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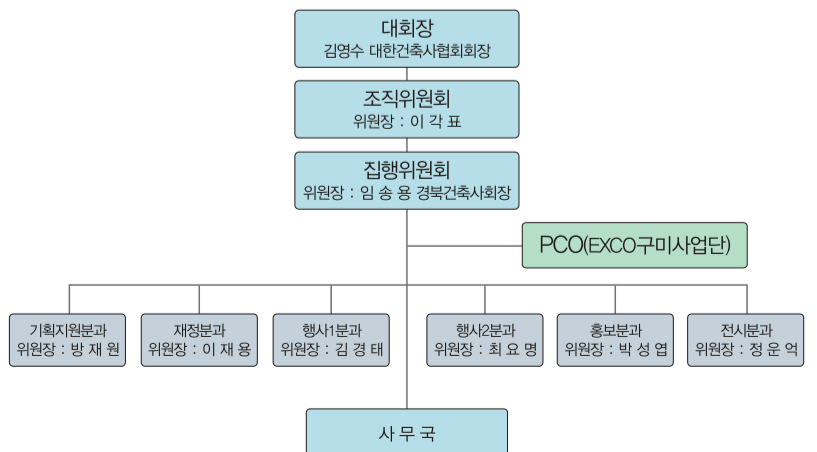
산업화에 치중했던 과거를 지나 현시대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환경의 제공에 건축의 가치가 점증적으로 요구됩니다. 고도화되어가는 도시에서 건축사의 역할은 더욱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행복추구권을 바탕으로 한 품격 있는 건축문화를 만드는 가운데, 최근 대형사고에서 보듯 건축으로 국민의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도 건축사가 해야 할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비전은 현사회의 변화, 국민적 바람과 요구 그리고 윤리와 가치관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진화되어야 합니다.

이 모두를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 변화의 선두에 서서 이끌어 가겠습니다. 우리의 현황을 면밀히 진단해 실천적 과제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새바람,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14년 建築士 변화된 시작’,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가 건축미래로 나아갈 길을 밝히는 대회가 되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2014년 建築士 변화된 시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발체 :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프로그램 북]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추진단



■ 전체일정

시간	10월 23일(목) 1일차	10월 24일(금) 2일차(본대회)
09:00~10:00	건축물 투어	접수 / 등록 건축사 실무교육 (09:30~12:00)
10:00~11:00		
11:00~12:00		
12:00~13:00		
13:00~14:00	건축물 투어	오찬(VIP, 일반참가자)
14:00~15:00		식전행사 - 특별강연, PID공연
15:00~16:00		기념식
16:00~17:00		
17:00~18:00		동시개최행사 : 경상북도건축문화제 (10. 24~26 / 구미코 1층 홍보관)
18:00~19:00	건축인의 밤(환영만찬) -개식, 선포문 낭독 -만찬(스탠딩 파티)	
19:00~20:00		

■ 특별행사 프로그램 안내

행사명	장소	프로그램	시간	연출 및 운영내용	출연진	TOOL
건축물 투어 10.23~10.25 (13:00~17:00)	투어 코스	경북일원 건축물 관련 답사 투어	2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어코스 1코스-안동(영주권 하회마을, 도산서원) 2코스-경주권 대릉원(첨성대), 동궁원(버드파크), 경주타워 3코스-구미권 해평도리사, 구미보, 박정희대통령생가, 금오산 올레길 (탄소제로교육관) 	문화관광 해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시도건축사회로 정보제공 및 시행 도내 각 건축사회 전담조직구성 및 응대 개별 투어 참가자 : 경북도회 접수, 주관 외국 초청자 : 본협회 국제협력부서 주관
2014 건축인의 밤 / 환영만찬 10. 23 (18:00~20:00)	금오산 호텔 그랜드 볼룸	2014 건축인의 밤 / 환영만찬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탠딩 파티 연출 -개식, 대화소개 및 선포문 낭독 -대회 홍보 영상물 상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청내외빈 -분회 임원, 16대시·도회장, 조직위원, 국내외 초청 인사등 (추후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향 무대백드롭 영상 연대 / 사회대 등 기타 협의 물품

■ 부대행사-건축영화제

일시	2014. 10. 24(금) 10:00~16:00(반복상영)
장소	다목적홀
참석인원	건축사, 일반참가자
프로그램	- 2014서울국제건축영화제 수상작 2편 - 홍보동영상



■ 부대행사 특별전시

- 일 시 : 2014. 10. 24(금) ~ 10. 26(일) / 9:00~ 17:00
- 장 소 : 구미코 (전면광장, 1층 홍보관)
- 주 관 : 경상북도건축사회

행사명	장소	운영내용	비고
건축홍보관	구미코 전면광장	· 일반인 참가자에게 건축을 홍보하는 기회 제공	
경상북도 특산물전	구미코 전면광장	· 경북지역 특산품 홍보 및 판매	
경상북도건축문화제 동시개최	1층 홍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공모전 · 건축작가 초대전 · 중국조선족 작품전 · 경북전통모형 전시 · 경북한옥표준모델 전시 · 해외 우수 건축물 전시 	전시기간 : 10. 24(금)~26(일)

■ 대한민국건축사대회장(구미코) 가는길

교통편	운행구간	운행시간	소요시간	운행횟수	문의
항공	인천공항 ▶ 대구공항	08:50~20:15	55분	2회	1577.2600
기차	서울 ▶ 김천구미역	06:00~21:50	1시간 25분	22회/일	1544.7788
고속/시외버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구미종합버스터미널	06:00~21:50	2시간 55분	1일 27회	1588.6900
공항리무진 버스	인천공항 ▶ 구미종합버스터미널	06:50~22:30	3시간 30분	18회/일	1688.1241
	대구공항 ▶ 구미종합버스터미널	07:30~21:35	1시간	8회/일	054.452.1300

구분	거리	시간	비고
수도권(서울톨게이트)	277.5km	2시간 43분	서울톨게이트 - 영동고속도로 - 중부내륙고속도로 - 경부고속도로
중청권(대전톨게이트)	111.8km	1시간 25분	대전톨게이트 - 경부고속도로
경상남도권(부산톨게이트)	167km	2시간 9분	부산톨게이트 - 대구부산고속도로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전라도권(광주톨게이트)	245.1km	3시간 12분	광주톨게이트 - 호남고속도로 - 호남고속도로지선 - 경부고속도로



자료 제공 : 경상북도건축사회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건축문화

사랑

- 16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16면 외전면광고 : 700,000원
- 하 단 광 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 독 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 금 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한 131-009-471898

조경과 인접 분야의 협업과 상생 _ 제2부



안 상 옥 단장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
aswnby@naver.com

- 제1부 - 조경과 도시계획 분야 (2014년 9월 게재)
- 제2부 - 조경과 건축 분야 (2014년 10월 게재)
- 제3부 - 조경과 토목 분야 (2014년 11월 게재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상옥 단장은 도시계획·조경분야 전문가로서 현재 LH에서 운정새도시의 개발사업 업무를 맡고 있으며, 지자체의 마을만들기와 도시계획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경과 건축분야의 협업과 상생

아파트의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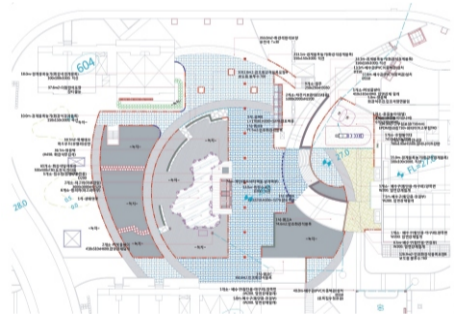
프랑스의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가 프랑스에서는 실패한 주거모델인 '대단지 아파트'가 어떻게 한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본 책 '아파트 공화국'이 지난 2007년



▲ 도시개발사업의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동그라미가 해솔마을 6단지)



◀ 해솔마을6단지 단지계획도 (동그라미가 중앙광장)



▲ 도시개발사업의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동그라미가 해솔마을 6단지)



▲ 해솔마을6단지 중앙광장의 조경실시계획도면(배식도)



▲ 해솔마을 6단지 중앙광장 전경



▲ 해솔마을 6단지 전경(중앙광장 주변)

발간되어 우리를 당혹하게 한 적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미 2010년에 우리나라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60%에 달했으며, 국민의 54%가 아파트라고 하는 5층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가족끼리 사는 단독주택을 층층이 겹쳐 높게 쌓은 주거동, 주민끼리 이용하는 주거동사이의 부대시설(주차장, 도로, 조경시설 등)과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상점 등), 단지 경계의 울타리 밖 시민들에게는 배타성을 가진 게 이 아파트 단지이다. 아파트 일색 도시화의 부작용인 공동체 상실 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아파트단지 옥외공간은 조경디자이너에게 과제로 다가온다.

건축법과 대지의 조경

모든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놓은 게 건축법인데, 건축주는 대지에 조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식재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을 고시(법 제 42조)하게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건축물 건설과정에서 대지면적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에 조경배식과 조경시설물 배치 등 조경설계를 진행하는데 이 글에서는 주택법을 사례로 설명하기로 한다.

주택단지와 옥외공간

주택법은 주택의 법률적 배대로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범위·설치기준 등은 하위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특히, 많은 입주인이 함께 생활하는 주택단지이기에 부대시설·복리시설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다. 주택에 딸린 '부대시설'로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단지 안 도로, 경비실, 조경시설, 우수처리시설,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등이 있고,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로는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상점, 주민공동시설 등이 있다.

90년대 중반부터 주택보급율 상승, 국민소득 증가, 근로시간 단축과 여가시간 증가가 이어지면서 공동주택단지 옥외공간에 대한 입주인의 관심이 커졌고 아파트단지 옥외공간의 특화(복합화, 대형화, 공원화, 정원화)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아파트단지가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놀고(놀이터) 뛰고(운동장) 걷고(녹지) 먹고(상점) 배우고(근린생활시설) 쉬는(휴게시설) 모든 행위를 편리하고 쾌적하게 영위하는 가장 중요한 삶터로 자리 잡으면서 건축뿐만 아니라 조경, 토목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업을 통해 고객의 마음을 끌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녹지와 조경수를 중심으로 놀이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안내시설, 보행시설, 수경시설 등 대부분의 옥외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계획·설계·시공을 조경가가 맡아 수행하고 있다.

주택건설의 규제완화와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지난 이명박정부에 이어 현 정부도 규제완화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의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를 시행하여 왔는데, 올해에도 의무화된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등 기준 완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를 두고 찬반의견이 팽팽하지만 주택의 소유주에게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여 삶의 다양성과 창조성을 높여보겠다는 시도는 눈여겨 볼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와 조경가는 아파트라는

제품의 기획단계부터 단지계획과 실시설계단계에 이르기 까지 고객중심의 협업을 통해 경쟁력있는 아파트를 생산하도록 힘써야 한다.

조경과 건축의 협업

도시개발사업지구 공동주택단지의 건설과정을 살펴보자. 해당 공동주택용지의 주택건설은 상품개발 단계, 단지계획 등 계획수립단계, 건축·토목·조경 설계 단계, 현장의 시공단계로 이어진다. 도시개발사업 단계인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해당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부문, 경관계획, 친환경계획을 통해 대지안 공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등이 시행지침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틀과 해당 지자체의 건축조례 등을 바탕으로 설계가 진행된다.

상품개발 단계에서는 수요 분석을 통해 주택단지의 주제를 정하고, 주택 단위평면 개발·옥외공간의 특화 방안 등을 설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조경가는 아파트 옥외공간의 특화(공원화·정원화, 통합디자인 등) 요소를 발굴해야 한다. 단지계획단계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시행지침 틀 안에서 주거동을 배치하면서 주차장·도로·주민공동시설 등 옥외공간의 부대·복리시설을 각 시설의 기능과 규모에 맞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조경가는 주택규정 등 관련 기준에서 설치가 의무화된 공간·시설을 먼저 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주민의 보행동선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도록 입주인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여야 한다. 광장·놀이터·주민운동시설·녹지·산책로 등 부대·복리시설의 종류·위치·규모 등을 결정하며, 주거동별 접근성이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한다.

다음은 설계단계로서 조경설계의 경우 놀이터·운동장·광장·쉼터·개울과 녹지 그리고 산책로 등 주민공동시설을 중심으로 실시설계를 하는 단계이다. 조경가는 상품개발단계에서 설정한 브랜드이미지와 단지계획단계에서 제시한 장소마케팅, 통합디자인 등의 틀을 바탕으로 입주인이 운동·놀이·휴게·위락·산책·공동체·녹지 공간을 부드럽게 넘나들도록 보행환경을 확보하고 빗물침투설계 등 자연환경의 생태성을 키우는 친환경적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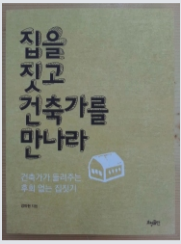
건축가와 조경가는 단지의 바람골과 통경축 확보, 주거동 1층·녹지·주민공동시설 부지의 조성계획과 결정, 건축물 저층부와 옥외공간의 디자인 통합, 옥상녹화 등의 협업설계를 통해 입주인이 일상생활에서 소중한 기회를 경험하게 힘써야 한다.

조경가의 자세

지금도 건축물이나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조경가는 건축가와 협업을 통해 상생하면서 이용고객과 입주인에게 활력있고 쾌적한 옥외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공동주택을 비롯한 건축물의 건설과정에서 조경가는 건축가에 비해 대지의 터무니에 깊이 천착한다. 또, 상대적으로 주변 경관과 나무·땅 등 살아있는 자연환경의 생태성 그리고 사람의 행태에 관심이 많다. 조경가는 생태·행태·경관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축물 옥외공간을 이용하는 시민·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건축물·아파트의 계획과 건설 과정에서 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특히, 단지계획단계에서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조경가는 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주민공동시설의 종류를 추출하고 세부 공간의 위치와 규모 그리고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를 실현시켜 주어야 한다.

“우리의 건축은 ‘사람’을 향합니다.”_ 전북 전주 강미현 건축사



얼마 전 우리 건축계에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한 젊은 건축사가 일반대중들에게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건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도서를 발간했다는 소식이다.

요즘 여러 일간지를 통해 이슈가 되고 있는 도서 “집을 짓고 건축가를 만나라” 의 저자 전북 전주의 강미현 건축사... 지난 10월 2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에 위치한 건축사사무소 예감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눠보았다.

최근 “집을 짓고 건축가를 만나라” 라는 책을 집필하시고, 발간하셨는데 계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용도에 비해 주택은 건축주 삶을 공유하기 위해 미팅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비공개카페를 통해 건축주와 대화도 하고, 집짓기 과정을 기록하고, 숙제도 내주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데 그 매뉴얼을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경험을 토대로 엮은 책이라 건축주는 물론이고 건축사에게도 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집을 짓고 건축가를 만나라” 라는 책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의 가제가 <세 번 짓는 집>이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번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건축주의 머릿속에 한번, 설계도에 한번, 그리고 땅위에 짓게 됩니다. 그 과정을 건축에 문외한인 건축주에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생각하고 가족과 대화를 통해 머릿속에 집을 짓고 설계자를 찾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건축사로서의 걸어오신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모른 채 건축이란 단어에 꽂혀서 건축과를 갑니다만,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건축의 다양함과 잘 맞아서 건축사로서 부족하지만 그럭저럭 무난하게 한 걸음씩 가고 있습니다.

건축사님께서 확립하신 건축철학을 묻고자 합니다.

건축철학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게 들립니다. 전 거대담론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누구를 위해 건축을 하는가?’를 자문자답 해보고 그 답을 사무실에 걸어 두었습니다. “우리의 건축은 사람을 향합니다.” 제가 하는 일상의 업무가 사람들을 보다 행복하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건축사로 활동하시면서 자랑스러울 때와 부끄러울 때가 있었다면?

규모가 웅장하고 멋진 디자인의 건축도 좋지만, 일상이 펼쳐지는 생활공간의 소중함을 아는 세심하고 감성적인 직업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소소한 예로 법적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이 아닐지라도, 출입구에 턱이 없는 상가 하나를 만들 때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고맙고 매력적인 일입니다. 반면 가벼운 주머니 사정 때문에 현실과 타협해야 하는 때가 제법 있습니다. 참 속상하지만 어떤 직업이던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의지의 문제이겠죠.

가장 존경하는 건축사가 있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저는 정기용 건축사를 존경합니다. 사람을 위한 건축 그리고 과정이 아름다운 건축을 하신 분이려 여깁니다. 저도 과정이 아름다운 건축을 하고자 노력하지만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존경스럽고 커 보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을 꼽으신다면?

저는 건축을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건축은 삶의 연장이며 우리가 담아 내는 그 삶을 작품이라 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축주와의 대화가 있는 주택작업을 좋아 합니다. 건축적인 완성도는 논의로 하고...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진행 중인 우리 사무실 재창조 프로젝트는 고달프지만 무척 재미있는 작업입니다. 건축을 하고 있는 나와 닮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기에 언제 끝날지는 저도 모릅니다.

(강 건축사는 노후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하나씩 하나씩 사무실로 꾸며가고 있었다. 건축설계와 리모델링 공사가 공존하는 사무소, 오래된 주거지에 스스로 스며들어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는 건축사. 왠지 모르게 찼한 땀 내음이 느껴졌다. -편집자 주)

그 동안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있었던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면?

주택 설계를 위해 만난 건축주가 있는데, 주택이란 용도의 특성상 유난히 긴 설계기간 동안 함께 집에 대해 공부하고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건축이 너무 재미있더라에 건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신 건축주가 있습니다.

사회봉사활동이 있으시면

현재 집중하는 활동은 주거약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장애인, 노인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공간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하우스 매뉴얼을 전북주거복지센터의 일원으로 참여해 작업중입니다.

선후배 건축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손끝에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고 만들어집니다.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특히 약자들의 삶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주었으면 합니다.

향후 계획 및 포부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입니다. 또 제 작업을 통해 좀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건축사로서 성실하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취재 : 서재형 편집인, 박주현, 윤미순 건축사기자
정리 : 광승국 전담기자 gjkira@empas.com



전북 전주/ 건축사사무소 예감 강미현 건축사



▲ 기분좋은 사무실 건축사사무소 예감의 하나하나 모든 부분에는 강미현 건축사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



▲ 편집위원들과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강미현 건축사



▲ 건축사의 꿈을 가진 중학생들에게 직업체험의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 일반 주택지에 위치한 건축사사무소 예감. 건축의 재생이란 단어를 몸소 실현하고 있다.

강미현 건축사가 건축 설계한 대표작품들



▲ 공예품체험관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 빌레콜라 하우스 / 전북 완주군 구이면 모악레이크빌 내



▲ 전북 완주군 동상면 대리리 J씨 주택

‘건축의 날’에 바라본 광주의 비전

안용훈 과장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anhun3097@korea.kr



지금으로부터 약 620년 전인 1394년 9월 25일은 조선왕조의 법궁(法宮)인 경복궁(景福宮)이 창건된 날이다. 경복궁은 조선 말기의 건축·공예·미술의 결정체라고 할 만한 것으로서 오늘날에 이르도록 그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다. 경복궁은 우리 민족과 겨레의 얼을 담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소중한 건축 자산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또 경복궁의 인기는 지난 여름 경복궁 야간 특별개장에 일일 관람객을 1500명으로 제한할 정도이며, 근정전·경회루 등 한 여름밤 고궁의 정취를 만끽하고자 하는 내외국인들의 관심에 야간개장이 유명포털에 실시간 검색 상위 순위에 오를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경복궁 창건일인 ‘건축의 날’

경복궁의 의미를 되새겨 대한민국 건축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고, 21세기 문화의 중심축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역사적인 건축물 경복궁 창건일인 9월 25일을 ‘건축의 날’로 제정했다. ‘건축의 날’은 대한민국 건축문화의 정체성과 고유한 문화를 유지·발전시키고 미래 건축의 비전을 제시하며 우리 건축물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일반인에게 알림으로써 세계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축환경을 국민과 함께 만들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건축은 인류와 더불어 호흡하며 발전해 왔다.

인류는 다양한 건축행위를 통해 도시를 형성했으며 도시는 인류의 문화와 정신적 가치를 포함하는 문명의 배경이 되면서 건축과 인류 그리고 도시가 맞물려 역사를 만들어내고 발전하며 진화해 온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1900년 전에 세워진 로마의 콜로세움을 보기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2400년 전에 세워진 파르테논 신전을 관람하기 위해 그리스를 방문하는 이유는, 고대 건축물이 존재하는 도시가 뿜어내는 이야기를 보고 듣고 느끼며 거기에 녹아 쉼 쉬고 있는 역사와 문화, 사상을 느끼기 위함일 것이다.

도시는 수세기를 거치는 동안 인간이 꿈꾸고 욕망한 것을 기획하고 실현하며 혹은 갈등하고 타협하면서 만들어내는 공동체의 산물이며, 전통과 새로운 유행이 혼재된 하나의 소(小)우주이다.

광주를 담은 건축물과 시민의 관심 필요

이제 우리 광주도 세계적인 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가치를 들고 도시의 위상을 높여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로의 발돋움 을 위하여 인류와 도시 그리고 건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20세기 철강 산업의 쇠퇴로 몰락해가던 스페인 빌바오를 화려한 신데렐라로 변모시킨 ‘빌바오 효과’를 두고 ‘구겐하임미술관’을 설계한 프랭크 게리는, “건축물 하나로 도시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빌바오 효과’는 과대 포장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시는 한 건축가의 열정만으로 이뤄질 수 없고 지역을 바꾸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와 예술성 높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구체적이면서도 통찰력 있는 계획, 아름다운 도시를 구성하고자하는 구성원의 노력이 있었기에 빌바오 신화는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프랭크 게리가 해석한 ‘빌바오 효과’와 같이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를 표현할 수 있는 예술적인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건축계획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건축물은 그 존재 자체로 역사와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후손들에게 길이 남겨줄 소중한 재산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올해로 ‘건축의 날’이 10돌을 맞이했다.

우리의 터전인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고자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노력할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건축사 만평

심상봉 건축사 작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개구리가 되지 말자.

이진석 학생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 자르디니공원에 위치한 한국관



▲ 아르세날레에 위치한 여러 작가의 작품들 중 하나

자신의 주위 환경에 따라 사고하는 방식, 정체성, 가치관들이 변한다. 한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나가는 방법 등 결과가 모두 다르다. 개인, 단체 할 것 없이 같은 원인을 가지고도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할 수 있다.

2014년 여름 베네치아 건축 비엔날레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베네치아 본섬 전 지역에 각 나라의 전시관들이 숨어 있었고, 주 전시 공간이 있는 자르디니(Giardini)에 위치한 한국관을 비롯해 여러 나라의 국가관을 방문했다. 나는 여러 전시관을 돌아다니며 작가의 의도와 대중들에게 말하고 싶은 부분을 ‘공감’하고 ‘소통’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 익숙하지 못한 영역에 나는 ‘공감’ 할 수 없었고, 나는 단지 ‘왜?’라는 물음만 할 뿐이었다.

새로운 영역을 마주하였을 때, 나는 부정도 긍정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익숙하고 쉬운 쪽이 아닌 접해보지 못하고 어려운 형태의 건축을 보고, 배우며 공부해보았다. 익숙함에 사로잡혀서 한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영역도 도전해보고 부딪쳐 보면서 영역을 넓혀 나가는 첫걸음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건축 비엔날레는 나에게 새로운 영역을 제시 했고, 폭 넓은 시선을 통해 건축을 바라볼 수 있게 일깨워주었다. 이로 인해 나는 나만의 정의를 내려 볼 수 있었다. 건축은 자신의 주장, 주제가 담겨 있어야 하며, 보편적이어야 한다. 즉, 나의 생각, 주장이 담겨 있어야 하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많이 접해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영역이 많이 있다. 나에게 건축은 항상 새롭고, 매일 다른 시선으로 마주한다. 오늘은 특이한 건물이 내일은 익숙해지고, 보편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여 진다. 그렇게 시간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인식은 변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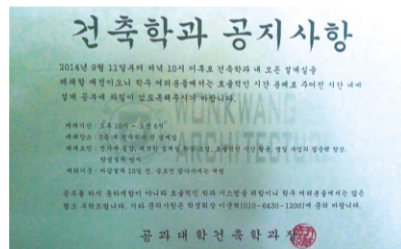
자신에 익숙함에 속지 말고 다른 영역에 도전해보면서 익숙해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성숙해지고 더 많은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고 싶지 않다. 당신은 우물 밖이 궁금하지 않은가?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설계실의 밤은 너무나도 어둡다.

양태선 학생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저녁 10시 이후 설계실 사용 금지 공지와 관련해...



2014년 9월 개강과 동시에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설계실 문 마다 공지가 붙었다.

학우들의 일 능력과 건강, 안전을 위해 밤 10시 이후 설계실 사용이 제한된다는 공지였다. 개강 첫 주라서 아직 설계실 자리 준비가 덜 된 상태였지만, 자리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공지가 실시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전 설계실에서 새벽까지 서로 모여 작업을 하다가 출출해지면 야식을 시켜 먹었던 풍경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보아온 건축과의 일상 중 한 부분이 지워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현재 2014년 9월 30일 밤 10시 이후 원광대학교 설계실 사용 제한이 실시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상황이다. 밤 10시 이후 불이 켜진 설계실도 있고, 불이 꺼져 있는 설계실도 있다. 우리 대학 건축과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 된 설계실 사용 제한 공지... 과연 이로 인해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어떻게 달라질까?

천일석재 CHONIL STONE

천일석재 음수대 7대 특징점

1. 통돌을 사용하여 설치가 간편하다.
2. 내부가 설치되어 있어 연결만 하면 된다.
3. 수도꼭지 고정시 교체하는데 편리하다.
4. 접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5. 설치후 사용 중 다른장소로 이동이 가능하다.
6. 천재지변이나 임의파손이 아닌경우 반 영구적이다.
7. 국내석으로만 제작한다.

음수대 / 음수전 / 볼라드 / 의자석 / 간판석

천일석재대표 강현녀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용왕길 77 (구, 익산시 함열읍 석매리 40-13)
 TEL : 063)862-0310, 0814 (야간) 841-5232 FAX : 063)862-0309
 E-mail : chonilstone@hanmail.net / www.chonil0310.com

제15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개최

– 오는 11월 3일부터 8일까지 전라북도 청사 일원에서 개최



올해부터 전라북도 건축문화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까지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건축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형태의 건축문화제 행사를 개최해 왔으나, 2014년도부터는 전라북도 건축문화진흥을 통한 건축문화의 대중화 및 후진 양성 등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설립한 (사)전라북도 건축문화진흥연합회와 전라

북도가 공동주최하고, 건축단체별 역할분담을 통하여 통합된 건축문화제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주최 측에서는 전북 지역의 우수한 건축물과 기술역량에 대한 홍보의 장 제공으로 전북건축문화 위상제고와 아름다운 건축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제고로 건축경기 활성화와 도내우수 건축물 발굴 및 지역인재육성,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공모전에 상금(발전지원금)을 지급하여 우수작품 참여 유도로 행사 품격 향상, 국제건축작품전을 통한 국제교류활성화 및 국제역량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과연 오는 11월 3일부터 8일까지 전라북도 청사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5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탄생될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주요 체험 및 참여행사 안내

▶ 건축 백일장 대회

1. 일 시 : 2014. 11. 8(토) 10:00 ~ 17:00 / 2. 장 소 : 전북도청 1층 홀
3. 행사개요
 - 참가대상 : 전라북도 도민(주부 및 학생)
 - 공무부문 : 수필(원고지 10매 분량 이내)
 - 참가주제 : “내가 꿈꾸는 집”
 - 작품응모 : 응모는 1인당 1작품에 한하며 반드시 당일 배부한 리포트 작성 용지(2매)

▶ 어린이 집그리기 대회

1. 일 시 : 2014. 11. 8(토) 10:00 ~ 17:00 / 2. 장 소 : 전북도청 1층 홀
3. 행사개요
 - 참가대상 : 전북도내 소재 초등학교(저학년 1~3, 고학년 4~6)
 - 참가부문 : “내가 살고 싶은 집 그리기”(상상화 포함)
 - 참가주제 : “동화 + 집”(저학년, 고학년 동일)
 - 작품응모 : 응모는 1인당 1작품에 한하며 반드시 당일 배부한 도화지 사용

▶ 건축 모형 만들기 체험

1. 일 시 : 2014. 11. 8(토) 10:00 ~ 17:00 / 2. 장 소 : 전북도청 1층 홀
3. 행사개요
 - 참가자격 : 건축올림피아드어린이 집그리기 대회건축백일장 참가자 및 가족등
 - 참가인원 : 200여명 내외
 - 참가방법 : 모형만들기 부스에서 참가자에게 건축모형 배부

▶ 건축영화제

1. 일 정 : 2014. 11. 7(금) 11. 8(토) / 2. 장 소 : 전라북도청 공연장 또는 전주디지털 독립영화관
3. 상영 일정 계획

상영일자	상영시간	상영작	비고
11월 7일	18:30	메이킹 스페이스(5인의 여성 선구자들) : 50분 상영	영화제개막식(18:30~)
11월 8일	11:00	마이크로토피아 : 52분 상영	
	13:30	망대 : 66분 상영	
	15:00	16에이커스 : 95분 상영	

※ 이 외에도 다수의 참여 행사 및 전시행사가 진행된다.

■ 제15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행사 일정표

행사명	장소 및 주관	날짜, 시간별					
		11.3(월)	11.4(화)	11.5(수)	11.6(목)	11.7(금)	11.8(토)
1. 학술발표	주관 : 건축학회 장소 : 도청 중회의실					10:00 ~ 12:00	
2. 설계사례 발표	주관 : 건축사회 장소 : 도청 중회의실					13:30 ~ 15:00	
3. 건축포럼	주관 : 건축가회 장소 : 도청 중회의실					15:00 ~ 16:20	
4. 건축문화상 시상 사용승인부문 계획작품부문 건축사진부문	주관 : 건축문화진흥연합회 장소 : 도청 대회의실 (접수 → 공연장 전시장)					17:00 ~ 18:00	
5. 건축영화제	주관 : 건축학회 장소 : 도청 공연장					18:30	11:00 13:30 15:00
6. 집 그리기대회	주관 : 여성건축가회 장소 : 도청 공연장 로비						10:00 ~ 17:00
7. 건축 백일장 대회	주관 : 여성건축가회 장소 : 도청 공연장 로비						10:00 ~ 17:00
8. 건축모형제작체험	주관 : 건축학회 장소 : 도청 로비						10:00 ~ 17:00
9. 건축올림피아드	주관 : 원광대학교 장소 : 도청 대회의실						13:00 ~ 18:00
10. 건축테마기행	주관 : 건축가회 장소 : 추후선정		09:00 ~ 17:00				
11. 건축상담	주관 : 건축사회 장소 : 도청 1층 로비			10:00 ~ 17:00			
12. 작품전시 건축문화상 공모전 한중일 국제건축작품전 한옥기획전시 역대 건축문화상 수상전 서화, 건축사진 등	주관 : -전라북도건축문화진흥연합회 -전북대학교 한옥기술종합센터 -전라북도 토지주택과 장소 : 도청 기획전시실, 로비 등		10:00 ~ 17:00				

(사)전라북도 건축문화진흥연합회(회장 김남중/(주)라인 종합건축사사무소)는 전북지역 건축 관련 단체인 대한건축학회 전라북도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전북건축가회, 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 전북여성건축가회,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5개 단체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2013년 10월 30일 설립됐다.

전라북도, 제15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공개 모집

– 사용승인, 계획설계, 건축사진 부문으로 진행, 오는 10월 20일과 21일 접수마감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건축문화의 질적인 향상과 아름다운 건축물을 확산하고 나아가 건축문화의 미래를 이끌어 갈 건축인 발굴을 위하여 ‘제15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용승인 부문과 계획설계 부문, 건축사진 부문으로 나뉘어 개최되는 건축문화상은 오는 10월 20일에 접수를 시작하여 21일에 마감한다.

사용승인 부문과 건축사진 부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이 참가 할 수 있고, 계획설계 부문은 국내 대학 재학 중인 외국인까지 참가가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현장접수(전라북도청/공연장 1층 전시실)와 우편접수(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8층, 토지주택과)를 하면 된다.

심사발표는 10월 30일 전라북도 홈페이지에서 게재되며 시상식은 전북건축문화제 기간인 11월 7일 전라북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도정정보-알림마당-공지사항) 및 전라북도건축사회 홈페이지(<http://jbkira.k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라북도 토지주택과(063-280-4368) 또는 (사)전라북도 건축문화진흥연합회(063-251-6040)로 문의하면 된다.

▶ 시상내용 (시상작 26점)

응모분야	시상별	작품수	시상내용	비고	
사용승인 건축물 부문	공공	대상	1점	상장, 동판	- 설계자 및 시공자 : 상장 - 건축주 : 부처용 기념동판
		금상	1점	상장, 동판	
		최우수상	1점	상장, 동판	
	일반	대상	1점	상장, 상금(300만원), 동판	- 설계자 및 시공자 : 상장 - 건축주 : 상금 및 부처용 기념동판
		금상	1점	상장, 상금(200만원), 동판	
		최우수상	3점 (분야별1)	상장, 상금(100만원), 동판	
계획설계 부문	일반	대상	1점	상장	※공동설계 작품의 경우 최대 3인까지 신청인정하고 모두 상장수여 ※학생부문중 대상과 금상을 수상한 대학의 지도교수에게 표창장 수여(증북불가) ※특별상: 건축관련 단체장상
		금상	1점	상장	
	학생	대상	1점	상장, 상금(300만원)	
		금상	1점	상장, 상금(150만원)	
건축사진 부문	일반	은상	1점	상장, 상금(100만원)	
		동상	2점	상장, 상금(50만원)	
		특별상	5점	상장, 상금(30만원)	
건축사진 부문	일반	대상	1점	상장, 상금(100만원)	
		금상	1점	상장, 상금(50만원)	

전북 익산건축사회, 2014년 가을 건축답사 진행

– 지난 9월 27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북안동 및 영주일원 건축기행

전라북도 익산건축사회(회장 안영목)는 지난 9월 26일과 27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상북도 안동과 영주 일원의 건축물을 답사했다

익산건축사회원 15인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지역을 기행하며 지역의 역사와 목조 건축물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의미를 확인했다.

안영목 회장은 이번 건축기행을 통해 “후배건축사 회원들에게는 선배건축사들의 철학을 듣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소통의 시간이 되었고, 지역회원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사)한국여성건축가협회 전북여성건축가회, 2014년 추계답사 진행

– 지난 9월 27일 회원 10여명과 전북 완주군 천호카톨릭성물박물관 등 답사



(사)한국여성건축가협회 전북여성건축가회(회장 김희순)는 지난 9월 27일 2014년 추계답사를 진행했다.

전북여성건축가회원 10여명과 회원 자녀들이 함께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천호 카톨릭성물박물관과 부활성당 중심의 성지 아름다운 순례길 등을 답사하며 회원 상호간의 유대감을 돈독히 했다.

한편 전북여성건축가회는 올해 전라북도건축문화제 기간에 전북도내 소재 초등학교생(저학년 1~3학년, 고학년 4~6)을 대상으로 하는 ‘2014 내가 살고 싶은 집 그리기 대회’와 ‘2014 건축 백일장대회’를 주관하여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내년 4월로 연기돼

– 전남 영암군,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차원으로 연기 조치

전라남도 영암군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고자 한옥건축박람회를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8일, 군에 따르면 AI 조기 종식을 위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한옥건축박람회, 왕인국화축제 등 군의 주요 행사를 간소화하거나 연기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30일부터 영암군 군서면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4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는 내년 4월 왕인문화축제와 연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 건축사 회원 동정

▶ 광주공동체시민회의에 참석한 광주건축사회 안길전 회장(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사진 우측에서 두 번째, 안길전 회장 (사진출처 : 광주일보)

지난 10월 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공동체시민회의에 광주건축사회 안길전 회장이 참석했다. 광주공동체시민회의는 광주광역시의 주요 현안과 미래 발전전략 등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결성됐다. 향후 광주시의 건축 관련 주요현안에 대해 건축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역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광주시의회 정책네트워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부회장(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사진 우측 뒷줄에서 두 번째, 정명철 부회장



지난 9월 25일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제7대 의회 정책 네트워크 정책위원 위촉식이 열렸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부회장(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이 위촉됐다. 정책네트워크 위원은 새로운 의정현안에 대한 정책제안과 더불어 주요정책에 대한 연구 자문 활동을 하게 된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위촉을 통해 건축사들의 활동영역이 넓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제10회 건축의 날 국무총리표창 수상(주)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양동협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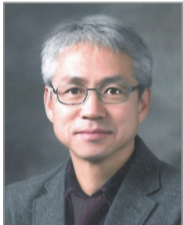
지난 10월 6일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제 10회 건축의 날에서 (주)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양동협 건축사가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양동협 건축사는 사명감이 투철한 건축전문인으로서 각종 건축문화진흥 행사 및 연계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개최하는 등 이를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인정됐다.

▶ 제10회 건축의 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수상(주)포유 건축사사무소 박홍근 건축사

지난 10월 6일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제 10회 건축의 날에서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박홍근 건축사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박홍근 건축사는 건축전문인으로서 투철한 직업의식과 사명감으로 뛰어난 작품활동과 다수의 사회단체위원활동, 언론 및 저술 활동, 연구활동 등을 비롯하여 지역 후진양성에도 이바지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 창간 5주년 기념 원고를 모집합니다.

그동안 저희 건축문화사랑 신문을 구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오는 11월호(60호)는 창간 5주년 기념호로 특별지면을 개설하여 독자여러분들의 원고를 게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 건축문화사랑에 하고 싶었던 모든 말들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1)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2매~3매 이내(작성자 사진 별도 첨부)
- 2)접수기한 및 보내실 곳 : 2014. 10. 24 (금) 18:00 메일주소 : gjkira@empas.com

※원고 송부시 반드시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기재바람.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조용준 회장, 광주도시공사 사장에 임명

- 지난 9월 23일부터 3년 임기 시작, 광주 도시 발전을 위한 역할 기대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명예교수이자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용준 교수가 광주도시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용준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조선대를 거쳐 청주대에서 건축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난 1980년부터 조선대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일본 도교대학 도시공학과 연구원, 교토대학 건축학과 초빙학자, 한국주거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도시계획 전문가다.

또한, 중앙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 중앙과 시의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준 사장의 임기는 9월 23일부터 2017년 9월 22일까지 3년간이다.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2014 제2회 광주도시재생투어 참가자 모집

- 통영 및 창원 지역 답사, 오는 11월 10일까지 선착순 100인 접수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회장 조용준)에서는 광주 도시재생 과제를 선진지 견학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광주 도시재생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시재생 선진지 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지난 6월 경 서울지역 북촌마을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을 답사했고, 이번 하반기에는 경남통영 및 창원지역 도시재생선진지를 답사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사무국(062-521-0025~6)으로 전화 접수 하면 된다.

광주지역 건축학도들, 2014 한국농촌건축대전에서 우수한 성적 거둬

- 계획건축부문에서 전남대 학생들과 조선대 학생들 각각 우수상으로 선정

광주지역 건축학도들이 전국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화제다. 지난 9월 초 발표된 2014 제9회 한국농촌건축대전 계획건축부문에서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유선희, 김상원, 한수빈 학생조가 달보러 '방방(전남 강진)'이란 작품으로 우수상(농어촌공사 사장상)에 선정되었으며,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김영환, 임홍섭, 조연경 학생조 또한 '기존 거점 중심으로 근린 공동체를 위한 집객도시 조성(안전남 완도)'으로 우수상(한국농촌건축학회 회장상)에 선정됐다.

한국농촌건축대전은 농촌주민의 삶 그리고 자연과 조화되는 농촌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촌건축학회가 주관하는 대회이다.

■ 정정합니다.

지난 2014년 9월호(58호) 1면(표지 지면)에서 「인터뷰_사람&issue 전남/AUD 건축사사무소 문창식 건축사」를 「인터뷰_사람&issue 전남/AUD 건축사사무소 문성식 건축사」로 정정합니다.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윤 춘 주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한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전화 : 062-226-7400 팩스 : 062-225-5310
홈페이지 : nicelawyer.co.kr / 윤변호사.com

이은주 세무사무소

광주건축사회 세무 관련 자문위원 이은주 이은주 세무사무소 대표

저희 사무실은 법인과 개인기업의 세무관련 서비스 및 경영컨설팅 제공. 조세에 대한 신고, 신청 등 불복대행 양도, 상속 등 재산세제의 상담,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동구청 및 북구청 지방세 심의위원
현)북구청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현)광주지방 국세청 심의위원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94 / 4층 (서광주세무서 앞)
전 화 : 062-383-0002 팩스 : 062-383-1181
휴대폰 : 010-3256-9759
e-mail : eunjootax@hanmail.net

하나오앤씨

대표 문 지 훈

최적의 설계 환경에 맞는 복사기 / 프린터 / 컴퓨터 / 소모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
귀하의 사무실 유지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품질은 최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 신도리코 / 케논 / 제록스 / HP

판매 임대	복합기	프린터	컴퓨터	시공	네트워크	프로젝터	서버
프로그램	AutoCAD	CADPower	Revit	Adobe	3D-Max	Sketchup	각종 프로그램
전산소모품	토너	복사용지	유지관리	A/S	수리	설치	유지보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신창로 86번길 7-7
C.P 010-6694-2233
TEL 062-374-6525 FAX 062-374-6526
E-MAIL - hanaoc@hanmail.net

광주건축사회, 2014년도 제1회 임시총회 개최

회칙 개정의 건(회장 제외한 임원 및 대의원 임기 2년으로 변경 건 등) 원안 의결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안길전)은 지난 10월 10일 광주건축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2014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회칙 개정의 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 의결 내용으로는 건축사회 회장을 제외한 건축사회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변경(정관 제45조 제1항)됨에 따라 회장을 제외한 건축사회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변경(제 21조 임원 및 대의원 임기)하는 내용이 의결되었다.

또한 회원 권리의 정지가 "건축사법에 따른 갱신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만료일로부터 갱신등록을 하기 전까지 회원의 권리는 정지된다."에서 "건축사법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등록을 하기 이전까지 회원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로 변경(제11조 2 권리의 정지)하는 내용과 징계 중 제명에 해당하는 자의 협회에 재입회하기 위한 경과연수가 1년에서 5년으로 변경(제41조 제2항 징계)하는 내용 등이 의결됐다.

한편, 광주건축사회는 오는 10월 18일 광주대학교 진월관에서 회원들의 단합을 위한 한 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News 광주건축사회 동정

- * 입회**
 - 박영수 건축사 / (주)아진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본촌택지30번길 8-3, 2층
- * 변경(소재지)**
 - 강필서 건축사 / (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27,609호 (오룡동, 광주디자인센터)
 - 김기영 건축사 / GY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서하로 348
 - 임태형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플랜 광주 서구 풍암신호로 11번길 38-28(풍암동 2층)
 - 오혁 건축사 / 연담 건축사사무소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52번길 6-13, 첨단 AM-CITY 2차 201호
 - 정광렬 건축사 / 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매월로2 53-0, 12-228 (매월동, 산업용재유통센터)
 - 황인광 건축사 / 타임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무등로 255 광주건축사회관 1층
- * 결혼**
 - 오 혁 건축사 / 연담 건축사사무소 본인 결혼 - 9월 27일 (토)
- * 부고**
 - 곽영경 건축사 / (주)간토 건축사사무소 빙모상 - 9월 26일 (금)

News 전남건축사회 동정

- * 변경**
 - 정대연 건축사 / 미가 건축사사무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74, 도청프라자 1104호
 - 김창원 건축사 / (그룹)에스엔에이 건축사사무소 가원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서북3길 38, 302호
 - 신승민 건축사 / SM 건축사사무소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6
- * 부고**
 - 양동범 건축사 / 동진 건축사사무소 본인 별세 - 9월 18일 (목)

News 전북건축사회 동정

- * 변경(소재지)**
 - 김문호 건축사 / 이룩 건축사사무소 전북 군산시 대학로 342, 동아26센터 1506호(나운동)
 - 임준호 건축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하영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동2길 1, 3층(효자동1가)
 - 최형두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예일 전북 임실군 임실읍 중동로 54(이도리)
 - 현주익 건축사 / 수 건축사사무소 전북 익산시 무왕로 1005-14(영등동)
- * 변경(상호)**
 - 권중곤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예일컨설팅트 (유)예일 건축사사무소
 - 송태천 건축사 / 진성 건축사사무소 (유)진성대상 건축사사무소
 - 박덕수 건축사 / 대상 건축사사무소 (유)진성대상 건축사사무소
- * 결혼**
 - 김용주 건축사 / 성림 건축사사무소 차녀 결혼 - 9월 21일 (일)
 - 배중철 건축사 / 명인 건축사사무소 아들 결혼 - 2014년 10월 18일 (토)
- * 부고**
 - 이장희 건축사 / 수도 건축사사무소 본인 별세 - 9월 16일 (화)
 - 장중우 건축사 / 장인 건축사사무소 빙부상 - 9월 20일 (토)
 - 이 실 건축사 / 국토 건축사사무소 본인 별세 - 10월 08일 (수)

※ 건축허가관련 양식 기재란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합시다. 건축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자동차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216호, 2014. 10. 07~10. 27)

1. 개정이유

공동주택 화재 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피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대피공간 방화문의 차열 성능 강화에 따른 시험에 필요한 근거를 두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화문 성능기준 개정(안 제5조제2항제1호 개정)

 - 1) 공동주택 대피공간의 차열방화문 도입에 따른 시험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개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215호, 2014. 10. 07.~11. 17)

1. 개정이유

아파트 대피공간은 면적이 협소(2㎡ 정도)하고, 출입하는 방화문은 열을 차단하지 못하여 화재 시 내부온도 상승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아파트 화재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피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피공간 방화문의 차열 성능을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화문 기준 개정(안 제26조 단서규정 신설)

 - 1) 아파트의 대피공간은 내화구조의 벽체와 방화문으로 구성되어 벽체는 차열이 가능하나, 출입문은 차열구조로 의무화 되지 않아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화재 등 유사 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적용되고 있는 비차열 방화문을 차열 방화문으로 개선

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기준 개정(안 제15조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 개정)

 - 1)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규제함에 있어 너비 측정 기준점이 없어 각 허가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함에 따른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단을 사용함에 있어 화재 등 유사 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실제 피난에 사용되는 공간인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규정
 - ※ 계단은 화재 등 유사 시 피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현재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및 복도의 경우 유효너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우리 부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즉, 유효너비로 운용하고 있음

□“담당건축사 제도” 도입... 신진건축사 설계 실적 인정

- 「건축사법」 개정안 9월 30일 국무회의 통과 -

- 신진 건축사를 육성할 터전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하였으며, 국토부는 추후 법 개정안을 10월 초 국회에 제출하여 정기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대국회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힘
- 건축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법인 등 건축사 사무소 대표 건축사뿐만 아니라, 소속 건축사가 건축물 설계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소속 건축사(담당 건축사*)의 업무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계도서 등에도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 건축사 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게 함
 - * 법인 등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 중에서 실질적으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
 - 외국과의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건축사가 건축사 자격 상호 인정 국가에서 발주하는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외 진출 확대를 꾀하고자 함
 -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분리된 별도의 '건축사 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및 공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16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16면외전면광고 : 700,000원
- 하 단 광 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 독 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 금 주 : 광주건축사회
- 계좌번호 :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 521-0025~6 F. 062) 528-0026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안길전, 국원식, 김남중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서엽
편집인: 서재형
전담기자: 박승국
편집위원: 강필서, 신영은, 박신남, 정명환, 정관성, 강동영, 김미영, 이광영, 백재봉, 윤미순, 박중호, 양우현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원일인쇄 T.062)228-7813
광고신청: T.062)521-0025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후원방식 :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한국·씨아이엠(주)	350,000원
마이다스아이티	300,000원
윤춘주 법무법인 서석	100,000원
이은주 이은주 세무사무소	100,000원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오는 10월 23일과 24일 경상북도 구미에서 개최되는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의 성황을 기원합니다.

표 | 지 | 설 | 명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 의 : 광주건축사회 (Tel : 062-521-0025)
E-mail : g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동네 건축사 되기.

아침부터 통탁통탁... 여기저기 공사소음이 들린다.
시끄러워서 화가 나기보다 배가 아프다.
'누군가 또 내 집근처에 설계를 해서 건물이 올라가는 구나' 하고 배가 아프다.
얼마전 전주에서 정읍으로 사무실 소재지를 옮기고서부터 이런 증상이 생긴 것 같다.
200여명의 건축사들 중의 그저 그런 하나의 건축사로 있다가 지역안에 있는 10명의 건축사 중의 하나가 된 지금, 새삼 건축사가 건축주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어떤 존재로 보여져야 할지 생각이 많아진다.
많은 사람들이 건축사란 존재에 대해 모르기도 하고 잘못 알고도 있다.
난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보다 그 자리를 피하기 바빴다.
사실, 건축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상대하기 싫었다.
그랬던 내가 이제는 동네건축사가 되기 위해 고민 중이다.
잔혹한 현실에 오만방자한 자만심을 내려놓게 된 것이다.
잡지에 나올만한 감각있는 건축사보다 친절한 건축사가 먼저 되기로 마음먹었다.
건축사사무소가 집을 지어주는 시공사로 오해하더라도, 집을 짓는데 공사비 외에 설계비를 내야하는 이유를 묻더라도 친절히 설명하기로 맘 먹었다.
그리고 건축을 할 때, 시공사가 아닌 건축사에게 먼저 의뢰해야만 객관적인 공사금액을 알 수 있고, 공사금액을 위한 건축면적이 아닌 꼭 필요한 공간을 계획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다.
설계비 없이 지은 방 세 개와 화장실 두 개의 30평짜리 집이 아닌, 건축사와 함께 설계한 뒤뜰의 감나무를 보며 설거지를 하는 주방과 늦은 저녁 자녀의 귀가를 소리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부방이 있는 집이 얼마나 삶을 즐겁게 해주고 우리가족에게 꼭 맞는 집인지를 알게 해주고 싶다.
이제 마음 단단히 먹었으니
겉먹지 말고 진흙탕 속으로 뛰어 들 준비를 해야겠다.

향 수

방학이면 이웃집에 서울말 쓰는
계집애가 내려오곤 했다

아이들 노는 틈에 그 계집애는
유난히도 드러나 보였다

전라도 말이나 서울말이
별반 다르지도 않았건만

전라도 사투리를 험 잡아가며
웃어대던 계집애 앞에
창경원의 동물들 이야기 앞에
동네 아이들은 맥을 쓰지 못하였다

언젠가부터
그 계집애는 나타나지 않았고
몽실 몽실한 그리움만이
이웃집을 서성겼다

아이들 서울구경 시켜준다고
창경궁에 들러 하늘하늘 거리는
내 딸 같은 그 계집애에게
방학때면
왜 내려오지 않았느냐고 되새겨본다

맑고 파란 하늘 속에
창경원의 동물들과
전라도 사투리의 아이들
그 서울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다

책 소개

히가시노 게이고(작가)
저 양윤옥 역 현대문학
2012.12.19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영화관에서 감독의 이름만으로 선뜻 그 영화표를 사게 되듯이, 서점에서 작가의 이름만으로 그 책에 손이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에게 '히가시노 게이고'란 작가가 바로 그런 존재이다. 특히나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나에게 가가형사 시리즈로 대표되는 그의 작품들은 항상 매력적이었다. 그렇기에 히가시노 게이고의 신작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란 책을 보자마자 선뜻 읽게 되었고, 그 간 접해왔던 추리소설과는 다른 색다른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아동복지시설인 환광원에서 함께 자란 야쓰야, 고헤이, 쇼타. 이들은 빈집털이 후 우연히 폐가와 다름없는 나미야 잡화점에 몸을 숨기게 된다. 조용히 하룻밤을 보내려던 원래의 계획은 올림픽을 위한 훈련과 불치병에 걸린 연인의 간호 사이에서 고민 중인 '달토끼'라는 여성에게 온 상담편지를 받고 그 답장을 하면서 바뀌게 된다. '달토끼', '폴

레논', '길 잃은 강아지' 등의 기명을 쓰는 이들에게서 온 고민을 상담하는 이야기, 그리고 나미야 할아버지가 자신의 잡화점을 고민상담소로 변모시킨 이야기 등이 총 5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 장들은 서로 무관한 듯 보이지만 결국 과거와 현재가 이어져있고 그 안에서 고민을 상담하는 사람들이 서로 얽혀있는 관계를 보여준다. 나미야 잡화점의 주인인 나미야 할아버지, 그의 옛 연인이 설립한 환광원, 그곳에서 자란 아이들인 야쓰야, 고헤이, 쇼타 뿐 아니라 환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화재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져 아이를 구한 '폴 레논', 환광원 출신으로 야쓰야 등이 보낸 나미야 잡화점에서 온 편지를 믿음으로써 성공한 사업가가 된 '길 잃은 강아지' 등은 환광원과 나미야 잡화점이란 두 공간을 매개로 각기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서로 이어져 있는 인연(因緣)을 보여준다. 또한 상담을 받는 사람과 해주는 사람 모두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모습은 점점 각박해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 나, 그리고 우리에게 잠시나마 위안이 되어준다. 더욱이 일반적인 사회의 잣대로 봤을 때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야쓰야, 고헤이, 쇼타가 다른 이의 인생길잡이 역할을 하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진지하게 상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고민을 함께 나누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어서 잠시라도 내 주변사람들을,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었다.
시간의 흐름이 멈춘 것과 같은 잡화점 안에서 과거와 현재가 교차한다는 다소 신비롭고도 엉뚱한 설정 속에 사회의 주변부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까지 보다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보면서 그 따스한 이야기에 미소짓게 되고 그 이야기의 끝에서는 긴 여운으로 가슴이 가득 차오름을 느꼈다.

박 현 진 사무관
미래창조과학부

건축사 Photo 1



목포 북항노을공원

전남 목포시 북항에 최근 개장한 주민 친수문화공간인 '노을공원'은 바다를 느끼고 체험하는 공간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변 데크와 휴게 공간 등 환경 친화적 공간으로 마련됐다.

백 재 봉 건축사 작 백 건축사사무소(전남)

건축사 Photo 2



인도궁궐 파테푸르 시크리

인도 아그라에서 37km 떨어진 곳에 있는 무굴 황제 akbar시대 건축된 사함으로 만들어진 궁궐 파테푸르 시크리

정 범 수 건축사 작 남북 건축사사무소(전북)